

영광 ‘반값여행’ 33억 규모 확대… 관광객 유치 박차

민선 9기 공약 추진…올해보다 사업비 2배 이상 상승
관광객 유입 증가…상반기 주요 거점 방문객 34.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광 반값여행’ 사업이 내년 33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5일 영광군에 따르면 2027년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10억8000만원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22억원 등 모두 32억8000만원을

투입해 반값여행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사업비 약 15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영광 반값여행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관광객이 영광에서 숙박·음식·체험·관광 시설 이용이나 특산물 구매 등에 사용한 여행경비의 50~70%를 모바일 영광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관광객의 여행비 부담을 낮춰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에서의 숙박과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올해는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난 10월 기준 1만2051건, 2만6389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7333명이 정산을 완료했으며, 관광객들이 영광에서 실제 사용한 지역 소비액은 2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군 자체 분석에서는 반값여행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2023년 산업연관표 계수비율을 적용한 결과 현재까지 생산유발효과 62억60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9억4000만원 등 약 9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관광객의 직접 소비와 환급금의 지역 내 재소비 등을 포함한 소비유발효과는 77억2000만원으로 분석됐다.

관광객 소비가 숙박과 음식점뿐 아니라 관광·체험업과 특산물 판매 등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영광군 공식 특산물 판매물인 ‘영광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광객 유입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영광군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1% 늘었다.

군은 내년부터 반값여행을 단순한 여행비 환급사업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체류와 재방문,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정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류형 관광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오는 10월 반값여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관광객 이용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

과 재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방일과 비수기, 축제 전후 기간을 활용한 프로모션도 확대하고 숙박·음식·체험·관광시설·특산물 등 지역 업종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반값여행을 통해 관광객 방문이 지역 내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사업을 확대해 지역에 오래 머물고 지역 곳곳에서 소비하며 다시 찾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백수을 백수해안도로의 해안 노을길 전경

담양호 생태탐방로 사업 방향 전환

군, 총 140억 투입…순환형 조성
산책로 등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담양호 일원의 관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담양호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담양호 전체를 잇는 순환형 탐방로 조성 방향으로 변경해 추진한다.

5일 담양군에 따르면 당초 담양호를 가로지르는 보도교인 가칭 ‘미르교’ 건설을 검토했지만 정밀 지반 조사와 실시 설계 과정에서 수심과 지반 구조, 홍수위 등을 살핀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설 장비와 기초공사 등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사업비 부담과 안전성 등 종합적인 검토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존 보도교 중심의 계획을 담양호 주변 탐방로를 연결하는 순환형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사업은 총사업비 140억원 범위에서 단절된 담양호 주변 숲길과 수변 산책로를 연결하고, 인근 마을과 용마

루길을 잇는 탐방 동선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담양호 주변 경관과 인공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수상 산책로와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탐방로 전 구간의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차장과 수변공원 등 휴식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관광객의 체류 여건을 개선하고 인근 마을과 지역 상권으로 방문객의 이동을 넓혀갈 방침

이다. 아울러 군은 최근 용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변경 배경과 주요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과 이장단의 의견을 들었다.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은 앞으로 진행할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해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담양=이사수 기자 iss270@gwangnam.co.kr

곡성, 의료·복지 통합돌봄
장애인 등 대상자 지원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은 노인 중심으로 운영해 온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9월부터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이번 사업 확대는 지난 3월 27일 노인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시행된 데 이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입원·입소해야 했던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정든 집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의료·돌봄 취약 가구와 그 가족들은 의료, 요양,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군청,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통합지원 체계 확대를 통해 대상자나 가족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마치면 이후 군청 전담팀과 읍면 담당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가사·이동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함평천지 몽베르 정원,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

170여종·2000여본 식물 생육…3개 주제정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의 민간정원인 ‘함평천지 몽베르 정원’이 ‘2026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이름을 올렸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천지 몽베르 정원’이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추진한 ‘2026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최종 선정됐다.

함평천지 몽베르 정원은 정원주 지용구씨가 조성한 함평군 제1호 민간정원이다. 지난 2023년 11월 7일 개원 후 현재까지 운영

되고 있다.

정원에는 현재 170여종, 2000본 이상의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 아울러 전통정원과 문화정원 등 3개의 주제정원이 조성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선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은 국내 민간정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정원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2년마다 추진한다.

올해는 전국 184개 민간정원을 대상으

로 서류심사를 거쳐 45곳을 선정할 뒤 현장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함평천지 몽베르 정원은 ‘정원의 낭만을 즐기는 정원’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이남오 군수는 “함평 1호 민간정원인 함평천지 몽베르정원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선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함평의 아름다운 정원과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의 민간정원인 ‘함평천지 몽베르 정원’이 ‘2026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함평천지 몽베르 정원 전경.

장성, 열대과일 가공상품 개발 ‘본격화’

농업기술센터서 소비자 평가회…스틱형 제품 제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지역에서 생산한 열대과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 농업의 부가 가치를 향상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황룡면 소재 농가에서 열대과일 가공 시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회를 진행했다.

앞서, 군은 지난 3월부터 ‘열대과일 및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백향과를 활용한 ‘필링’과 ‘소스’를 ‘스틱형 제품’으로 제작했다.

조용식 국립식량과학원 발효가공식품과 박사로부터 백향과 잼 관련 특허기술을 전수받는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도 펼쳤다.

농산물 판매 위주였던 그간의 산업 구조를 가공상품 중심의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다.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평가회는 제품화에 앞서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개선점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회에 참여한 소비자 10여명은 맛, 향, 식감, 당도, 포장 편의성, 구매 의향 등의 항목을 통해 시제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평가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제품 제작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한중 군수는 “장성을 대표하는 아열대 가공상품 출시를 목표로, 제품의 완성도를 꾸준히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hb6699@gwangnam.co.kr



황룡면 소재 농가에서 열대과일 가공 시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회가 진행됐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청

순천, 위성 설계·기술 현안 집중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위성 개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점검에 들어갔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어울림체육센터에서 ‘순천SAT 개발 및 실증사업’ 회의를 개최했다.

‘순천SAT 개발 및 실증사업’은 지난해 12월 누리호 6호 탑재위성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대학과 기업, 유관기관이 위성 개발과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해 관련 경험과 기술 역량을 지역에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순천시는 올해 4월 (재) 전남테크노파크, 국립순천대학교, 조선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 추진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 조선대학교 관계자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소속 위성 분야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개발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주요 설계사항, 기술적 현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